

2020년 3월
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주)문화방송

3월 시청자위원회 회의 개요

1. 시청자위원회 회의 : 서면회의

○ 방송사 답변

: 최창욱 드라마본부장, 김구산 예능본부장, 이우환 시사교양본부장,
안재주 라디오본부장, 강미영 편성국장, 박장호 통합뉴스룸국장,
윤미현 시청자소통센터장

○ 시청자위원 의견제시

이규정 위원장 /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전경란 부위원장 / 동의대 디지털콘텐츠·게임애니메이션공학부 교수
김수정 위원 /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편집위원
박성현 위원 / 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편집위원
박진수 위원 / (주)클로세움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사단법인 점프 신사업팀장
오수원 위원 / 법무법인 민 구성원변호사
윤여진 위원 / (사)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이상길 위원 / 동아방송예술대 방송예술융합학부 교수
정석희 위원 / 방송칼럼니스트
홍성재 위원 / 한성대학교 창업R&D센터 교수

2. 의견제시, 시정요구

구분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보도 보도제작	〈뉴스특보〉, 〈뉴스데스크〉, ‘사회적 거리의 의미’, ‘4.15 총선 보도 관련’
	교양	〈MBC 다큐프라임〉, ‘경제 이슈 전문 프로그램 신설 건의’ 〈PD수첩〉
	예능·오락 스포츠	〈나쁜사랑〉, 〈배철수 잼〉, 〈끼리끼리〉, 〈언니네 쌀롱〉, 〈리얼 연애 부러우면 지는 거다〉, ‘MBC 드라마에 바란다’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야외촬영 예능의 피해 우려’
	기타	표준FM 〈아침&뉴스, 류수민입니다〉

◆ 시청자위원회 의견 발표 및 본부·국장단 답변 ◆

박진수 위원 : 2월 23일(일) 오후 6시경에는 코로나19 전파 관련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뉴스특보>를 통해 전달되었다. KBS와 JTBC를 통해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전환하고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는 등의 긴급한 소식들이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반면, MBC에서는 출연자들이 10명 이상 다수인 <끼리끼리>가 방영되고 있었다. 향후 2주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밀집된 시설 내 여러 명이 함께 접촉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뉴스특보>에서 확인되고 있었지만, MBC 채널에서는 <뉴스특보>와 관련된 그 어떤 소식도 볼 수가 없었던 점이 많이 아쉬웠다.

특히, 2월 22일(토)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가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타이밍에 MBC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콘텐츠나 대응 방식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더욱이 <끼리끼리> 방영 종료 이후 <복면가왕>도 그대로 진행이 되었지만, 어떠한 메시지도 살피보기 힘들었다. 새로워진 MBC 보도체계와 신뢰에 걸맞지 않은 장면이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아쉬움이 발생한 당시 상황과 입장에 대해 여쭙고 싶다.

박장호 통합뉴스룸국장 : 먼저 박진수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개학연기가 결정됐던 2월 23일은 코로나 사태 중대분기점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개학연기 같은 소식은 긴급 속보 형식의 자막으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데스크>가 임박한 저녁 시간에 특보를 편성하는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특보와 <뉴스데스크> 사이 짧은 시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분량을 조정할 여유가 없고, 그래서 <뉴스데스크> 스타트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큼니다(저녁 시간대 특보와 달리 낮 시간대 특보는 후속 프로그램 분량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커서 <뉴스데스크> 스타트 시점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시간대 경쟁하는 상대사 메인뉴스보다 <뉴스데스크>가 늦게 시작하게 됩니다.

전 국민의 눈과 귀가 뉴스로 쏠릴 이 날 예정시간보다 메인뉴스를 늦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도국은 2월 23일 저녁 시간대 특보를 편성하지 않는 대신 <뉴스데스크>를 밀도 있게 구성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당일 <뉴스데스크>는 스포츠뉴스와 헤드라인을 없애고 평소보다 8분가량 더 많은 시간을 확

보해 코로나 관련 뉴스를 상세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특보 편성과 <뉴스데스크> 정시 시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수정 위원 :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이 논란이 됐다.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표현인데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행정용어라서 쉽게 봉쇄라는 표현을 선택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역민에게 봉쇄라는 단어가 들릴 때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정의하는 대로 들리지 않았다. 봉쇄라는 표현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 통제를 포함해 행정력으로 대구 지역을 가둔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쉬웠다. 대구 시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격분했을까. 물론 질병관리본부에서 쓰는 봉쇄의 의미가 “(전염) 전파의 봉쇄”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알려지고 나서는 이 표현의 오해가 풀렸을 테지만 단어의 선택과 표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할 것인가는 대표적으로 잘 보여줬다.

뉴스는 증폭기로서의 효과가 있다.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고 나면 공적인 사안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제로 중요성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이슈는 지역 사회의 안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어느 때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표현을 뉴스가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부정확한 사실 인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감안해서라도 최대한 차분하게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역할이 언론에게 있다.

앞에서 예를 들었지만, 의료나 감염관리 전문가의 표현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문용어를 뉴스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표현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설명하고 해석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평범한 표현으로도 들리는 사회적 거리는 사회 학술적으로는 사회적, 개인적 관계를 특정 짓는 친밀도와 이해의 정도를 측정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개인이 타인에 대해 느끼는 친밀성의 정도를 결정할 때 사회적 거리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회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친근감과 교감 정도가 높은 사이이고, 사회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교감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줄어들어 대면을 적게 하고 관심이 줄어든 느슨한 관계의 사이라고 보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이 용어가 요즘에는 대면 접촉 거리 정도로 쓰인다. 이를테면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감을 두는 용어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자칫 대면 만남을 제한하고 포기하게 해서 편견과 차별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업화될수록 공동체 사이의 ‘사회적 거리’는 가까워져야 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이 거리를 좁혀 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 가지 않고, 집단행사를 열지 않는 등의 충분한 사례 안내를 함께 해서 정확한 용어의 의미를 알게 하고, 물리적 접촉을 줄이는 것과 별개로 지금의 사태를 우리 모두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 그리고 포용을 통해 이겨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4.15 총선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 사태로 선거이슈를 다루는 보도가 매우 적다. 선거는 지역의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정치에 대한 시민의 역할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여야 한다. 정당에서 대면 유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한 탓인지 선거 열기가 높지 않다. ‘총선 연기’에 대한 이야기도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다. 선거이슈를 접하고 확인할 길이 신문, 방송, SNS에 한정된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3월 2일부터 8일까지 <뉴스데스크>에서 내보낸 선거보도를 세어보면 총 9건이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치적 참견시점’에서 선거 관련 보도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총 13건의 리포트가 선거 관련 보도였다고 볼 수 있다.

보도건수 자체가 적다 보니, 보도주제도 공천 과정과 결과에 많이 할애했다. 후보 동정과 정당의 선거 전략에 집중한 경향이 보인다. 대결구도가 선명한 지역의 언급이나 유명 정치인의 공천결과에 주목하는 경향이 보인다. ‘정치적 참견시점’에서 다른 선거이슈는 흥미가 있는 에피소드나 정치공방이나, 논란이슈를 다루는 경향이 있어서 선거이슈의 이해가 파편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뉴스가 정당의 정책이슈나 지역의제를 알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 차이가 무엇인지, 신진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었으면 싶다. 이전 선거보도에서 전 보도국장은 후보들을 거리에서 만나 대담을 했던 시도는 신선했다. 짧은 뉴스로 선거이슈를 전달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다른 언론과 다른 시도로 분석보도를 준비했으면 싶다. 인물 간 비방과 폭로 등의 이슈들이 점차 늘어날 텐데 인신공격 자체를 뉴스로 다루기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성, 공약실행 준비성을 비교, 분석한 보도가 더 많았으면 한다.

박장호 통합뉴스룸국장 : 코로나 사태를 보도하는 MBC 뉴스의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두 가지가 연대와 극복입니다. 연대와 극복의 메시지를 담은 뉴스를 다른 어떤 매체보다 많이 소화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반부터 공감과 이해, 포용을 통해 희망을 찾아가는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은 물론이고 대구, 경북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 같던 1주일간에는 <뉴스데스크>에 '힘내라 대구경북'이라는 고정 코너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뉴스데스크> 말미에 배치되는 '오늘 이 뉴스' 코너에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코로나와 싸우는 우리 이웃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자칫 대면 만남을 제한하고 편견과 차별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은 오히려 사회적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김수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MBC 뉴스의 키워드로 삼고 있는 연대와 극복이 위원님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믿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져야 만이 오늘의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총선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시청자들에게 선거 관련 쟁점과 이슈, 정치인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책무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정치기사의 꼭지를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공약은커녕 어느 당이 선거에 나올지조차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양과 질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닌 만큼 한정된 양의 기사에서나마 좀 더 나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정당들의 이합집산도 정리되고 후보들 면면도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각 정당의 정책이슈나 지역의제, 후보자들의 공약, 국회의원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성, 공약실행 준비성을 검증하는 보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현 위원 : 2월 후반부부터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월 말~3월 뉴스는 온통 코로나 사태로 뒤덮였다. 특수한 '재난 상황'이니만큼 그에 따른 신중한 보도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많은 언론사들이 국민에게 불안·공포감을 확산시키는 보도를 했고 MBC 뉴스도 몇몇의 경우 그런 경향에 부합해 우려를 낳았다. 특히 '마스크' 관련 보도는 필요한 정보 제공 외에,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시민들이 고생하고 불만이 크다'는 같

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재생해 시청자들에게 오히려 피로감을 누적시켰다.

예) “한 장이라도 더”…온 가족 동원해 ‘마스크 구하기’ 전쟁(2/24)

마스크 사려고 수백 미터 줄…“이러다 감염되겠다”(2/25)

매일 350만 장 푼다는데…내일은 마스크 살 수 있나?(2/26)

매일 350만 장 푼다더니…여전히 “마스크 없어요”(2/27)

‘마스크’ 5백만 장 풀었다는데…오늘도 ‘헛걸음’ 많아(2/28)

2월 말부터 매일 마스크에 2~3꼭지씩 할애하다가 3월 3일에는 6개까지 폭등해 정점을 찍었는데, 이날 포털사이트의 라이브톡에는 마스크 보도에 지친 시청자들의 항의와 비판이 매우 많았다. 마스크 구입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보도로 인해 오히려 국민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관심을 온통 마스크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해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마스크 수급 상황이 월등히 낮고 매일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변수가 많은 재난상황에서 마스크 공급 같은 대처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도 없고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도 없는 일이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마스크 얘기만 하는 뉴스는 유익한 보도가 될 수 없다.

특히 3월 3일의 마스크 관련 6개 꼭지들 중 특히 “마스크 안 써도 된다?…환자 늘자 느슨해진 기준”에서 마스크 권고사항의 변화과정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는데, 방역당국의 말이 자꾸 바뀌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비판 내용들 중 일부는 <뉴스데스크>의 이전 보도(2월 뉴스들) 내용과 배치되는 듯한 면도 있어 이 역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

예 1) “마스크 안 써도 된다?…환자 늘자 느슨해진 기준”: “그러다 오늘은 급기야 건강한 일반인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3/3) → “집 앞 슈퍼 갈 땐 꼭 안 써도”…마스크 오해와 진실: “하지만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야외에선 필요치 않다고 2월 12일에 이미 인용 보도함)

예 2) “마스크 안 써도 된다?…환자 늘자 느슨해진 기준”: “마스크 재사용도 이제는 된다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3/3) → “열 가하고 소독약 뿌리면…‘마스크’ 재사용 가능?”: 인터뷰 내용 “...그 필터는 깨지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거죠.” “본인이 사용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 한해 일부 재사용 가능하다고 2월 26일에 이미 인용 보도함)

예 3) 3/3 “마스크 안 써도 된다?…환자 늘자 느슨해진 기준”: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지난달 6일) “굳이 KF94, KF99와 같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KF80

과 같은 보건용 마스크나 방한용 마스크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가 품질사태를 겪고 병원들도 구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자, 일주일도 안 돼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이라며 권고기준을 또 바꿨다. 이때부터 KF80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대상을, 기침하거나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사람,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등 고위험군으로 제한했다. → ‘지난달 6일에서 일주일도 안 돼서’라는 것인지, 맥락이 불분명해 낱자 상의 혼란이 생긴다. 일본 정례 브리핑의 다음 내용은 2월 5일자이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병원 근무자 등은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KF94, KF99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일반인의 경우 KF80을 사용하여도 효과는 있다. 필터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없을 때는 기침, 재채기 등으로 인한 침방울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방한(면 등 재질) 마스크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3/4 마스크 품귀에…‘폐기처분’ 마스크를 약사가 유통) 관련, 2월 12일 보도에서 이미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다’고 나온 상태인데, 이 꼭지의 끝부분에서 기자는 허허벌판 같은 곳에서 마스크를 쓰고 보도를 해 의아함을 자아낸다. 한편, 같은 3월 4일에 보도된 마스크 관련 꼭지 하나 “면 마스크 써도 된다”…어떻게 사용해야 효과적인가는 전날 마스크 관련 보도에 비해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주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보도는 언론이 비판하는 방역당국, 식약처 등 정부 기관의 대책이 빛은 혼선만큼 언론 스스로도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스트레스만 가중시키는 것이 된다. 마스크 사용과 관련해, 언론은 마스크 착용 조건, 재사용 가능성, 방역에 있어 마스크의 비중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조사하고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3월 3일 <뉴스데스크>의 포털사이트 라이브톡 누적 수는 9만 8백대로, 기존에 1위였던 타 방송 뉴스의 라이브톡 누적 수(9만 4천4백대)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다. 당일 <뉴스데스크>의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 수도 3만 명대까지 갔고(구독자 57.9만 명, J방송사 뉴스는 당일 2만 2천~3천, 구독자 128만 명), 매일 평균 2만 수천 명에 이른다. 3월 10일은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 수 3만 4천 명대, 포털사이트 라이브톡 누적 수 9만 4천4백대(J방송사 뉴스는 각각 1만 4천 명대, 9만 4천9백대)이다.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몇 달 전 <뉴스데스크>의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 수가 증가하고 포털사이트 라이브톡에 긍정적 반응들이 꾸준히 올라오면서 그것이 곧 시청율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 <뉴스데스크>를 신뢰하고 아끼는 시청자들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3월 3일의 반응은 <뉴스데스크>를 아끼는 많은 시청자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 같아 우려가 되었다. 다행히 이후의 뉴스들에 변화가 엿보여 고무적이다.

3월 4일 코로나19 1129번째 확진자인 문화해설사의 꼼꼼한 동선 일지 작성 얘기는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3/3)보다 늦어져 기시감을 준 아쉬움이 있다. 대구 동산병원 의사 인터뷰를 비롯해 간호사 얘기 등 의료진의 헌신, 환자 이송을 도우러 간 전국의 구급차들, 검체 검사 연구원들과 음식물 자원화 처리장 직원들처럼 의료진 외에 코로나와 싸우는 사람들, 시민들의 기금 마련 등, 이런 긍정적인 뉴스는 코로나 사태로 지쳐 있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 특히 '오늘 이 뉴스' 코너는 이런 소식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 시청자에게 격려가 된다.

코로나 관련 내용이 뉴스의 거의 모두를 차지하면서 정치 관련 뉴스의 비중이 적은데(경제뉴스는 늘 아쉬운 부분이다), 총선과 관련해 거의 공천 위주로만 보도되어 내용이 제한적인 경향이 있다. 그나마 총선 뉴스는 '정치적 참견시점'에서 주로 나오는데, 코너의 특징상 흥미 위주의 에피소드 정도로 다루지는 편이라 제대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정치 뉴스를 보기가 어렵다. 비례대표제와 선거구 개편 등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때가 때이니만큼 코로나 위주로 뉴스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조금 더 다양성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바로 간다', '소수의견', '법이 없다', '로드맨'은 어디에?, 역시 코로나19 때문인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이 좋은 코너들이 드물어졌다. '바로 간다'는 2월 5일, 11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인 3월 12일에 방송이 되었고, 나머지 코너들도 2월 이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뉴스 홈페이지 상에서 예전에는 왼쪽 편에 코너별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졌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시적인 감소 현상인지 혹은 폐지된 것인지 궁금하다. <뉴스데스크>의 매력적인 코너들이어서 오래 못 보는 상황이 개인적으로 아쉽다.

특히 보도본부 인권사회 팀의 '장애인 인권 기획보도'는 '제18회 언론인권상' 특별상(2020년)을 수상할 정도로, 의미 있는 기획이자 꼭 필요한 보도로서 그 의의와 열의를 인정받은 좋은 코너였다. 지난 2019년 4월 '소수의견'에서 시각장애인 대학생인 한혜경 씨가 직접 바이라인을 쓰면서 시민기자로 활약해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준 것은 신선하면서도 설득력이 컸다. 그런 훌륭한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다.

3월 3일 뉴스("마스크 구하기 전쟁 속... "노인·장애인은 소외")에서 일부 다루지긴 했으나,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 마스크 구입을 비롯한 여러 정보획득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실정을 혹시 한혜경 씨가 다시

리포트 해 줄 수 있을는지?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장애인 이슈를 지속적으로 이 코너들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애인 문제가 인권단체들을 통해 언급되기는 하지만, 공영방송 메인뉴스에서 보도될 때의 파급력은 매우 큰 것이고, MBC <뉴스데스크>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권문제를 조명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도본부 인권사회 팀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

박장호 통합뉴스룸국장 : 3월 9일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된 이후 <뉴스데스크>는 마스크 공급 부족과 관련한 리포트를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5부제 첫날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리포트를 한 것이 전부일 겁니다.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마스크의 효과적 공급을 위한 더 이상의 대안이 현 상황에선 마땅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스크 5부제 시행 이전 마스크 공급 부족과 관련한 보도를 많이 했던 것은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할 만큼 당시 정부의 대응이 적절치 않았고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3월 1일 <뉴스데스크>에선 타 이완의 마스크 공적 공급 방식을 선제적으로 소개하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말부터 집중됐던 마스크 관련 뉴스 상당수가 현상을 반복적으로 나열하며 시청자들의 스트레스만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대안모색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안일한 취재와 제작 관행을 되풀이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특히 3월 3일 <뉴스데스크>에서 마스크 관련 꼭지가 6개가 됐던 것은 내부에서도 너무 많았던 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만드는 입장에선 6개 꼭지가 전부 다른 맥락이었지만 시청자 입장에선 똑같은 뉴스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는지 반성 합니다.

같은 날 방송된 ‘마스크 안 써도 된다?...환자 늘자 느슨해진 기준’ 리포트를 둘러싼 논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구한 해명보다는 마스크 기준 변경에는 동의하지만 식약처의 메시지 관리가 허술해서 정부가 공연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저희 보도 취지였음을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헤아려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작년 말 뉴스 사이트 개편에 맞춰 ‘바로 간다’, ‘소수의견’, ‘법이 없다’, ‘로드맨’ 같은 <뉴스데스크> 고정 코너들은 뉴스 홈페이지에 따로 항목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뉴스 사이트 개편을 주도했던 디지털뉴스편집 팀에 따르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최대한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구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뉴스데스크> 고정코너 항목을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판단이 타당했는지 다시 한번 검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 더욱 어려움이 클 장애인들의 실정을 한혜경 씨가 다시 리포트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은 즉시 인권사회 팀에 전달해 보도가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훌륭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뉴스’와 인권사회 팀에 대한 격려에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박진수 위원 : 지난해 9월부터 KBS에서 매일 저녁 10시 55분에 기존의 딱딱하고 정형적인 시사 프로그램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진 새로운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바로 KBS1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다. KBS 대표 아나운서와 팟캐스트 우수 진행자가 만나 주로 경제 중심의 시사 이슈를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고 해석해 준다. 줄곧 말씀 드려왔었던 ‘경제’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 없어 찾고 있던 터라, 더욱 흥미롭게 매일 시청할 수 있었다.

특히, 고정 패널로 출연 중인 ‘김동환’ 소장은 팟캐스트에서 경제 분야 1위를 기록 중인 <신과 함께>에 출연한 이력이 있으며, 함께 진행자로 활약 중인 정영진 씨 역시 출연을 거듭하며 이슈가 되는 경제 소식, 특히 부동산 정책이나 주식 시장에 대해 유쾌하게 해설해주었기도 했다.

MBC에서도 이와 같은 콘셉트의 프로그램을 누구보다 잘 진행할 수 있는 베테랑 ‘이진우’ 기자가 떠오르는 대목이었다.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충분히 검증된 분이 있음에도 왜 MBC에서는 뉴스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지 매우 아쉽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주목받는 경제전문 크리에이터들이 참 많다. 국민들의 실제 체감도와 벗어나는 경기지표, 쏟아져 나오는 정부의 경기회복 대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 복잡해 보이는 경제 뉴스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주는 이들의 활약은 직장인을 비롯해 많은 대학생 및 주부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경제 이슈 전문 프로그램의 신설에 대해 여러 번 의견 드렸고 그에 대해 답변을 주셨지만,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현재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의 콘셉트나 포맷과, 보다 말랑말랑한 경제 콘텐츠에 점점 익숙해진 대중들에게 일상속의 친근한 경제 시사상식 콘텐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많이 든다.

넷플릭스의 인기 있는 음식/역사/예술/스포츠 관련 다큐멘터리 시리즈들과 현재 공중파 방송의 딱딱하고 오래된 느낌의 다큐멘터리들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는다. 여건상 새로운 경제 뉴스, 시사 프로그램 신설이 어려우시다면,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진지한 개편과 함께 하는 경제 이슈 전용 코너 신설도 한 번 더 강력히 건의 드리고 싶다.

이우환 시사교양본부장 : 박진수 위원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시사교양의 영역에서 경제 관련 프로그램은 제작자로서 풀기 어려운 숙제 같은 주제입니다.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 실시간으로 경제 관련 이슈들을 녹여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적하신 것처럼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가 현실적으로 최적의 포맷인 듯합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청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TV 본연의 역할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KBS1 이라는 채널 특성도 반영된 프로그램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TV편성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간대인 밤 11시에 데일리 정보 생방송을 가능케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다른 환경입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 동향에 촉각을 기울여야 하는 팬데믹의 시대야말로 경쟁의 논리보다는 시청자에게 꼭 필요한 경제 관련 프로그램이나 코너가 필요할 때라고 공감합니다. 실제로 현재 <생방송 오늘 아침> 등에 경제전문가를 패널로 출연시켜 그때그때 부응하는 경제 이슈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사토크 더 라이브>처럼 즉각적이고 친근하게 이슈를 소화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는 현재 방송 중인 오전 정보 프로그램 시간대나 뉴스 시간대에 말씀하신 경제 시사 상식 코너를 개발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된 경제 시사 프로그램의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미영 편성국장 : 위원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경제 이슈는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정보이기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이슈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할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등 시청자들이 매일 접하는 와이드 뉴스 프로그램에서 경제 분야를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MBC의 디지털 뉴스채널인 '14F'에서 자산관리사 유수진 씨가 진행하는 '아이돈케어'와 '내편갈등' 등을 통해 경제 이슈를 다루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돈케어'는 사회초년생, 자취생 등 경제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정보를 쉽게 얻기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전세대출, 보험 등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경제 이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라디오 표준FM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통해서도 경제와 관련한 정보들을 쉽고 친근하게 제공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및 라디오 등의 플랫폼에서 경제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만큼 MBC의 내부자원을 활용해 지상파에서도 경제 관련 이슈가 프로그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교양 프로그램 <시리즈 M> 등 기존 프로그램 내에서도 경제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

를 수 있도록 시사교양 제작진과 활발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원 위원 : 〈MBC 다큐프라임〉(3/15) 363회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다. 이 프로그램은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주장에 맞추어 우리나라에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화두를 던진 것으로 생각된다. 처음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선 앤드류 양의 매달 1,000달러 자유 배당에 관한 공약부터 소개하고, 기술발전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에 관한 사례, 그리고 미국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PFD) 제도의 소개와 그로부터 혜택을 본 사람들의 소개로 마무리하였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향후 로봇이나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세상이 곧 도래하여 현재의 고용구조나 사회안전망 대책에 획기적인 모색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과 같은 기획이 더 많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토론과 비판이 활성화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까지의 자본주의 체제나 시장경제질서의 모습 그대로가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회의 작동원리로 유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보장하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어디로부터 구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의 경우는 알래스카의 석유자원으로부터 그 기본소득원을 구할 수 있었고 이의 효율적인 투자로 배당금의 재원을 충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알래스카와 같은 기본적인 자원 없이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하여 보편적 기본소득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와 조삼모사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중국에는 파산에 이르러 우리나라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부자들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그들로부터 보편적 기본소득에 충당되는 자금을 탈취한다면 이는 국가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이 왜곡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중국에는 모두가 실패하는 방향으로 치닫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보편적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은 더욱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통해 그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 주에 2부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 다만, 만약 2부에 보편적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이의 여러 대안의 모색에 관한 추가 제작을 권유해 드린다.

이우환 시사교양본부장 : 위원님의 <MBC 다큐프라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관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소득의 미래’ 2부작을 기획하게 된 배경은 사회전체의 기술수준, 생활수준 그리고 부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비례하여 많은 국민들의 소득수준, 안정적이 직업의 향유가 가능하지 않은 심각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해법과 대비는 당연히 현재 우리 사회, 국가의 책임입니다. 다행히 최근, 코로나 사태를 둘러싼 국면에서 제한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기본소득’ 제공이 당면한 문제 극복에 가장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막대한 자원입니다. <MBC 다큐프라임>에서는 ‘기본소득’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이나 일방적인 효과만을 담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2부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을 이미 시도한 선진국의 객관적인 평가, 현실적인 자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MBC 다큐프라임>이 근원적인 해법까지는 담지 못하더라도 적극적인 논의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BC 다큐프라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윤여진 위원 : 코로나19로 모든 사회가 멈춰있다. 2월 18일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한국사회는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2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지역감염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감염병과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PD수첩>의 ‘코로나19와 신천지’(3/10, 17)라는 제목을 보면서 걱정이 앞섰다. 지역감염의 시작을 신천지 대구교회의 2월 16일 예배로 보고 있고, 그 후 대구경북지역의 집단감염에 신천지 신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을 정도였지만, 신천지 또한 일부러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와 신천지’라는 제목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확신하듯 신천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직접적 가해자로 보이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천지 측의 투명하지 못한 명단공개와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문제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그들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직접적 가해자라고 낙인찍는 것은 옳지 못하다.

3월에 들어서 집단 지역감염으로 구로 콜센터, 그리고 최근 해외 입국자로부터 확진자가 증가되는 추세가 되기 전까지 언론은 새로 발생하는

확진자와 신천지와의 관계성부터 먼저 찾아보았고, 마치 신천지 탓에 코로나19가 창궐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감염병 재난보도준칙과도 맞지 않는다. 이번 <PD수첩>은 코로나19와 신천지를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나 제목만으로는 신천지와 코로나19와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PD수첩>은 오랫동안 이단종교의 문제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취재해 왔고 신천지와 관련된 방송도 2007년에 한 적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신천지라는 교회의 전도방식과 다른 교회나 종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2부에 걸쳐 특별히 방송되었다고 보인다.

이번 '코로나19와 신천지' 편에서는 신천지교회의 성장과 전도방식에 대해 집중취재하며 신천지를 이탈한 신도들의 증언을 통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세를 확장했는지 보여주었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 신천지의 전도방식이 사기협박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전도방법이 형법상 사기 및 협박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질서유지가 어지럽게 된다는 취지다.

신천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탄의 무리와 싸워 이긴 자가 있는데 그 이긴 자가 바로 이만희 총회장으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증명하기 위해 보낸 사자이며, 신도들은 이 총회장을 통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로 신도들을 현혹하고 있다. 특히 신천지를 전도하는 신도들은 처음에는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않고 문화체험 프로그램 또는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교리교육을 받게 했다. 만약 신천지라는 것을 의심하면 전도자들 중 일부는 같이 전도를 받는 사람들로 위장해 더욱 철저하고 교묘하게 이를 관리해 의심을 배제시켰다. 방송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보면 그들이 '모락전도'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단순히 속일 뿐 아니라, 타 종교지도자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이탈하려는 신도들을 막고 그들에게 속임수를 쓰는 것을 정당화시켜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판결문이나 나와 있듯이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문제의 종교라고 보였다. 특히 청년과 여성들이 많은 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요즘의 청년들이 힘든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파고들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세뇌하는 것은 정말 문제이고 사회악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번 <PD수첩>은 오랫동안 이단종교의 문제를 제기해 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였고, 내용상으로는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신천지라는 내용으로 제작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신천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상황에서 그 종교의 문제적 실체를 보여준 것은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고 보인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신천지가 방송을 문제 삼아 문제를 일으키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천지 종교의 문제를 2부에 걸쳐 제작된

것이 너무 반복적인 내용으로 제작된 듯한 인상을 주었다.

코로나19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바꿔놓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더 이상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로 인한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론은 잘 살피고 추후 함께 해결해야 할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유치원과 학교를 가지 않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로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보도를 통해 코로나 19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나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우환 시사교양본부장 : 윤여진 위원님의 의견 감사히 들었습니다. <PD수첩>은 신천지를 다룸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한 검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칫, 마녀사냥식의 방송이 되지 않을까, 혐오와 차별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에 대한 경계와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내부 발제로부터 취재 착수에 이르는 과정이 통상의 경우보다 일주일 정도 초과 소요되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제작을 결정한 이유는, 국가적 재난상황임에도 신천지의 대응이 불투명하고 그로 인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신천지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커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공영방송 본연의 의무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을 함에 있어서 최초 제기되었던 우려가 희석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실검증과 치우치지 않는 내용전개에 대해 반복적으로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 말미에 MC 멘트를 통해 “누구에게나 종교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신천지 신도라고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방송이 ‘마녀사냥’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도 <PD수첩>은 시민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유념해 방송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 일일드라마는 온 가족이 함께 보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된 장르이다. 일일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라면 스토리의 전개가 다음 회 차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함으로써 또다시 보고 싶다는 매력을 갖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요즈음 방송되는 일일드라마 <나쁜사랑>(극본 홍승희, 연출 김미숙)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드라마는 늘 가족 간의 불화가 있는 큰 기업 대표의 식구들과 사랑이 넘치는 가난한 집 식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71~72회에서는 가난한 집 최소원(신고은 분)을 사랑하는 대기업 ‘노유

그룹'의 맏아들 한재혁(이선호 분)이 최소원을 교통사고에서 구하려다가 대신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스토리다. 한재혁과 늘 갈등이 있는 둘째 아들 한민혁(윤종화 분)의 아내 황연수(오승아 분)가 어릴 적 입양되어 가난한 집에서 함께 성장했던 최소원이 한재혁과 사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차로 치려 하다가 이를 막으려는 한재혁이 대신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다. 이런 스토리 전개방법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작위적인 구성이라 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일일드라마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구성 중에 하나지만, 스토리의 반전을 위해 황연수가 최소원에게 갑자기 차로 돌진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나쁜사랑>도 다른 매일 드라마와 같이 혼외 자녀 문제, 친자확인 및 상속문제, 미혼모 문제 등 불륜과 비현실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 프로그램 전에 방영되었던 <비밀과 거짓말>(2018/6~2019/1), <용왕님이 보우하사>(2019/1~7월)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앞으로 새로 방영될 일일드라마에서는 지금까지 보여 왔던 식상한 요소들을 되도록 적게 포함하면서도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드라마가 되기를 바란다. 가족이 함께 보는 매일 드라마가 비정상적인 일상을 다루기보다 건전하면서도 흥미진진한 드라마로 바뀌길 기대한다.

최창욱 드라마본부장 : 애정 어린 관심으로 일일드라마를 보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이상길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드라마 <나쁜사랑>은 한창 갈등이 고조되는 중·후반부를 달리면서 조금 더 자극적인 구성을 하다 보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식에 맞지 않은 설정이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기작 드라마를 준비하면서는 식상한 요소들을 최대한 줄이면서 시청자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드라마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석희 위원 : 몇 달간 시청자위원회에서 드라마에 관한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이는 악성댓글보다 더 무섭다는 '무플' 상태와 같다. 최근 드라마 시장에서 인기를 얻은 작품을 살펴보면 KBS <동백꽃 필 무렵>과 tvN <사랑의 불시착>, SBS <스토브리그> 등으로 인간 군상 드라마 성격에 희비극이 교차하는 구성이다. 영화 <기생충>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함께 고민해야 옳을 분명한 화두거리는 갖추고 있지만 시종일관 어둡고 심각한 분위기는 아닌 것이다.

혼란한 국내외 정세,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심신이 피폐해진 이때 무거운 주제의 장르물이 환영받을 리 없다. 가벼운 터치의 <어쩌다 발견한 하루>(2019/10~11월)가 기대 이상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18일부터 수목드라마 <그 남자의 기억법>이, 23일부터 월화드라마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이 방송된다는데 자칫 심각한

주제로 인해 시청자의 외면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또한 주인공에 의존하기보다는 KBS2 <동백꽃 필 무렵>의 '옹벤저스'나 tvN <사랑의 불시착>의 '사택마을 아낙네들'처럼 다양한 인물들의 매력을 끌어내는 데에 힘써주셨으면 한다.

최창욱 드라마본부장 : 위원님, 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청자들의 심신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가볍고 편히 볼 수 있는 드라마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MBC 드라마가 무겁고 심각한 주제의 드라마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남자의 기억법>은 과잉기억증후군을 갖고 있는 남자 주인공과 열정을 다해 사는 라이징 스타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감성 로맨스물을 표방하고 있는데, 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가볍고 아기자기한 내용들도 가미가 될 것입니다. 또한 5월 방송 예정인 후속 월화드라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와 수목드라마 <꾼대인턴>은 훨씬 가볍고 유쾌한 색채의 드라마입니다.

특히 <꾼대인턴>은 과거 자신을 못살게 굴었던 꾀대 부장을 부하직원으로 맞게 된 남자와 시니어 인턴으로 재입사 하게 된 舊 꾀대 부장의 이야기를 다루는 오피스 코미디물인데, 이 두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피스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코믹터치로 재밌게 표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편성에 있어 다양한 시청자들의 니즈를 고려한 장르, 소재상의 안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런 시청자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건 감사드립니다.

전경란 위원 : 오래간만에 좋은 예능 프로그램을 만났다. <배철수 잼>이다. <배철수 잼>에는 이야기가 있고, 노래가 있고, 대중문화가 있고, 트렌드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다. 좋은 토크쇼에는 몇 가지 고유한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첫째, 토크쇼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캐릭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캐릭터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혹은 프로그램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배철수 잼>의 주 진행자는 대중가수로서의 경력과 음악에 대한 이해, 오랜 기간 음악 프로그램 DJ로 쌓아온 입담과 대중문화를 해설해내는 전문성, 어떤 초대 손님이 와도 매끄럽게 대화를 진행해가는 유연함이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더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는 듯하다. 진행자의 구성에서도 <배철수 잼>의 주 진행자가 70년대부터의 사회상과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소화한다면, 상대적으로 젊은 부 진행자 역시 90년대 이후 자신이 경험했던 문화 콘텐츠와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야

기한다. 그런 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특정 연령층에만 소구하지 않고 더 많은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시청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초대 손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1회-2회에 걸쳐 초대된 가수 손님의 경우, 처음에는 왜 이 사람들이지? 주 진행자의 섭외 범위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중음악의 흐름 속에 1회 및 2회 초대 손님들이 차지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단지 이들에 대한 향수나 올드팬의 감성을 건드리기 위해 초대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3회 및 4회의 초대 손님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갑자기 너무 급부상해서 언제 또 거품처럼 사라질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사람이지만, 〈배철수 잼〉을 통해 비친 그 초대 손님의 인생 이야기와 삶에 대한 시선, 가수로서의 새로운 모습은 단순히 흥미로움을 넘어 한 사람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어쩌면 이런 점 때문에 20년 가까운 공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관심을 다시 받을 수 있었나 보다 생각이 들었다. 5회 초대 손님은 오래도록 잊고 있다가 다시 만난 지인 같은 반가운 얼굴이었다. 또 주 진행자의 전문분야라 할 수 있는 대중음악을 넘어 만화와 영화 그리고 그 콘텐츠를 둘러싼 사회 문화에 대한 이야기까지로 프로그램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았다.

셋째는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해주는 시청각적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방송사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기에 가까운 옛날 프로그램의 영상을 보는 재미가 있었고, 주 초대 손님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보조 초대 손님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의외성이 있어서 좋았다. 또 그들이 들려주는 노래는 프로그램이 녹화되는 장소가 주는 매력과 더불어서 〈배철수 잼〉을 단순한 토크쇼가 아니라 작은 콘서트로 만들어주었다. 전문 기타리스트의 손을 거쳐 탄생한 편곡, 댄스곡을 어쿠스틱 버전으로 들려주는 시도, 젊은 가수들이 소화해내는 한국과 세계 대중음악의 오래된 명곡들은 프로그램을 보는 즐거움 외에도 듣는 즐거움을 얹어주었다. 앞으로 〈배철수 잼〉이 진솔한 이야기 그러면서도 뻔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내용과 구성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이상길 위원 : 지난 1월 26일부터 방영되고 있는 〈끼리끼리〉는 “국내 최초의 성향 존중 버라이어티”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흥끼리 그룹과 늘끼리 그룹으로 나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은 괜찮으나 프로그램 시청에 지루한 느낌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그룹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기대가 계속되는 화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경우는 이 요소가 부족한 것 같다. 마치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즐겨 노는 것을 그냥 촬영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조심스러워 MBC 홈페이지에 있는 〈끼리끼리〉 사이트의 시청자 의

견을 살펴보니 비슷한 견해를 갖는 시청자들이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을 참조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김구산 예능본부장 : 먼저 〈배철수 잼〉을 볼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좋게 평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몇 회 남지 않았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제작진들에게 남은 기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방송 토크쇼가 자리 잡기 위한 여러 요소들, 진행자의 명확한 캐릭터, 시청자가 관심 가질만한 초대 손님,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해줄 시청각적 요소 등 너무도 적절하게 되짚어 주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배철수 잼〉 방송을 떠나 앞으로 있을 또 다른 토크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금과옥조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인상 비평을 벗어나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구조적 부분까지 평가에 언급해 주신 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배철수 잼〉은 남은 방송 더욱 다양한 분야의 초대 손님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끼리끼리〉는 10명의 멤버들이 함께하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최초 성향 존중 프로그램’이라는 부제에 알맞게, 서로 비슷한 취향은 함께 즐기고 다른 성향은 이해해 보자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친했던 멤버 10명이 아닌 제작진 섭외에 의해 모인 멤버이기에, 일단 10명의 멤버가 서로 간에 친밀감을 가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프로그램 초반이고 서로가 친밀해지는 과정을 그려내다 보니, 본인들끼리 일상적인 일을 하며 즐기는 내용이 다소 방송되었습니다. 하지만 회가 거듭될수록 ‘캐릭터’와 ‘관계’가 쌓이면서, 점점 기획의도와 부합하는 내용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큰 틀에서는 ‘양자택일’을 기본으로 시청자들도 본인 취향에 맞추어 함께 선택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점점 변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모니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재 위원 : MBC의 새로운 예능 〈리얼 연애 부러우면 지는 거다〉(3/9)가 실제 연예인 커플의 리얼한 러브스토리를 내걸고 시작되었다. 연애를 주제로 한 예능은 많았지만 연예인과 일반인의 실제 러브스토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좋은 포지션을 획득했다고 본다. 화제성 측면에서도 꽤 성공적이라 보인다. 특히 지숙과 함께 등장한 이두희 씨는 알고 보니 마스크 알리미 앱을 만드는 등의 활동으로 생각보다 시민들과 접촉면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 더욱 매력이 크게 다가왔던 것으로 보인다. 본 방송의 장점이라는 리얼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연예인 커플의 실제 러브스토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리스크도 있겠지만, 첫 방송에서 만큼은 화제성과 유니크함을

함께 잡았다.

아쉬운 점은 모니터링을 하는 MC들이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아 자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직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을 하는 타이밍이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간이 점차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도 다양한 실제 커플들을 통해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담은 장수 프로그램으로 남길 바란다.

MBC의 새로운 예능이 시작되면서 <언니네 쌀롱>은 문을 닫게 되었다. 메인 MC의 교체로 인해 프로그램이 큰 변화를 겪었음에도 꾸준히 좋은 콘텐츠를 제공한 제작진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시청자들에게 폭넓게 사랑을 받지도, 일부 마니아를 양성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방송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아 아쉽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시청자 특집으로 진행했던 방송들을 호평하는 글들이 보였는데, 내부적으로 일반인들의 메이크오버가 딱히 경쟁력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다. 결과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연예인들의 수단으로 메이크오버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당위성이 흔들렸던 것이 가장 큰 패착의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의 유지를 강조하는 현시점에서 야외 촬영이 많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잦은 야외촬영을 기반으로 하는 예능의 원활한 제작이 걱정스럽다. MBC의 예능 중 야외촬영이 많은 <끼리끼리>나 <선을 넘는 녀석들> 그리고 <구해줘! 홈즈> 등은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하고 또 해외촬영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야외촬영이 많은 예능도 형식을 현시점에 맞추어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또 많은 국민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고, 원활한 야외활동을 하지 못하는 잠재적 스트레스가 크다. 이러한 점을 예능의 명가 MBC에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구산 예능본부장 : 고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리얼 연애 부러우면 지는 거다>는 실제 커플에 대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예능에서는 없던 포지션이었던 터라 첫 회부터 많은 화제성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자리 잡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MC들은 현재 예능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들로 구성되었으나, 실제 커플의 공개 연애를 관찰한다는 것 자체가 MC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경험이어서 각자의 예능 캐릭터를 잡아가는 과정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회, 3회를 거듭할수록 각 MC들의 캐릭터와 역할이 점점 명확해지고 다섯 MC의 팀워크도 탄탄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리얼 연애 부러우면 지는 거다>에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언니네 쌀롱>은 중간에 메인 MC 교체가 있었는데, 모델 이소라 씨를 섭외하면서 장소도 실제 미용실로 옮기고 구성도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전 MC인 한예슬 씨가 화려한 패셔니스타로서의 면모로 매력을 뽐냈다면, 이소라 씨는 친근한 옆집 언니 같은 편안한 진행으로 쌀롱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또한 많은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2회를 시청자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 신청을 받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꽤 소요되었기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연을 꼼꼼히 검토하고 개별 인터뷰를 거쳐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특집의 주인공인 화천의 초임 교사와 황혼의 육아 할머니 모두 일반인인 만큼, 고정된 이미지가 전혀 없어서 그런지 비포&애프터의 격차가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처음부터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명인의 스토리가 아니어도 일반 시청자들의 사연 또한 공감하며 들을 수 있었고 연예인에 버금갈 만큼 개성 있는 캐릭터를 보여줬습니다.

시청자 특집 방송 이후 여러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이슈가 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저희 제작진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6회를 마지막으로 <언니네 쌀롱>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즌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변신이 더욱 와 닿을 만한 일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하는 구성도 연구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의 우려대로 모든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촬영방식이라든지 아이템 구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모든 제작진은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프로그램 제작에 임하고 있습니다. 야외촬영은 최대한 줄이고 있으며, 촬영 시에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TV 편성부 등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프로그램 손실을 줄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MBC 예능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응원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이 하루 빨리 끝나기를 저희 모든 구성원들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석희 위원 : 매일 아침 표준FM <아침&뉴스, 류수민입니다>를 듣는다. 뉴스에 사연이 더해져서 자질구레한 집안일하며 듣기 딱 좋은 구성이다. 날씨예보부터 그날의 날씨와 잘 어우러지는 선곡이며 알아두어야 할 좋은 정보, 청취자 사연까지, 세상을 보는 창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라디오 애청자는 라디오를 늘 곁에 켜두고 일하는 분들이 태반이라고 알고 있다. 일하느라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접할 여력이 없는 분들에게 이

방송은 사회, 정치, 경제 및 그날의 일정을 일목요연하게 쉽게 요약해서 전해준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립상태에 놓인 분들에게 특히나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3월 9일 월요일 방송을 예로 들어보면 올 벚꽃 개화시기와 전국 꽃 축제 취소 소식, 마스크 5부제 구입정보, 당일부터 시행되는 일본비자 제한 등 주요 일정과 간추린 뉴스가 이어졌다.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와 함께 하는 '이유 있는 뉴스' 코너에서는 대구 한마음 아파트 코호트 격리 상황과 백병원 폐쇄 상황, 그리고 앞서 전한 뉴스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줬다.

이렇듯 <아침&뉴스, 류수민입니다>의 장점은 딱딱한 뉴스이되 전달방식은 쉽고 편안하다는 것. 고규홍 나무 칼럼니스트가 전해주는 나무 이야기는 우리가 평소 소홀히 여겼던 나무에 관한 내용이라서 반갑고 전주현 외신 캐스터, 김태범 스포츠 캐스터의 코너 또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라서 좋다.

뉴스에 사연을 접목시킨 포맷이어서인지 류수민 아나운서의 진행이 돋보인다. 코너 성격에 맞게 즉, 뉴스를 전할 때와 사연을 소개할 때, 초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각기 다른 톤의 진행이 가능하다. 이른 시간이긴 하나 아기자기한 사연을 통한 청취자와의 소통과 공감이 더해진다면 좀 더 풍성한 방송이 될 것 같다.

안재주 라디오본부장 : 먼저 <아침&뉴스, 류수민입니다>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아침&뉴스, 류수민입니다>는 하루를 시작하는 이른 아침시간에 핵심적인 뉴스를 전하고 시사이슈에 대해 청취자와 소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가을개편에 류수민 아나운서로 진행자를 교체해 좀 더 밝은 분위기로 뉴스를 명료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가 주중 매일 출연, 시사에 대해 쉽게 설명하며 청취자들의 신뢰를 쌓아 오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4.15 총선으로 중요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뉴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짧은 방송시간이지만 핵심적인 뉴스와 해설, 활기찬 음악을 전하며 청취자들의 아침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취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더욱 생활에 밀착하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유익하고 친근한 프로그램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윤미현 시청자소통센터장 : 시청자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과 제작진의 피드백입니다.

윤여진 위원님(2019/1월)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MBC 주말드라마가 너무 뻘한 스토리로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고 지

적해 주셨습니다. 이번 3월 개편에서는 주말드라마가 중단되고, 대신 월화드라마가 부활되었습니다. 월화드라마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은 일본원작 <리피트>를 각색한 프로그램입니다. 주말드라마의 자리에는 지난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선보인 <오 나의 파트, 너>가 4월 4일부터 방송될 예정입니다.

박진수 위원님께서 “MBC가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프로그램 유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하셨고, 이상길 위원님은 2019년 4월, “MBC가 지상파 플랫폼을 초월하여 다른 플랫폼과 결합하여 젊은 세대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나 혼자 산다>에서는 디지털용 스펀오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나 혼자 산다 STUDIO>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녹화 30분전」이란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 중입니다. 화사와 성훈의 클립은 20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면서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정 위원님께서 지난 2월 “특집VR휴먼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가 감동적이었다. 프로그램을 완성한 이후의 이야기와 함께 기술구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나?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너를 만났다>의 후속으로 제작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 3월 12일 방송되었습니다. 지난 2월 6일 방송에서 미처 다 소개하지 못했던 나연이 어머니 장지성 씨의 이야기와 제작기를 모아서 방송하였습니다. 또한 시사교양본부에서는 <너를 만났다>의 김종우 PD를 팀장으로 VRTF를 구성하여 VR다큐멘터리의 가능성을 실험 중이라고 합니다. MBC창사기념일 즈음, VR휴먼다큐멘터리 몇 편을 방송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피드백을 보내왔습니다.

정성희 위원님께서서는 프로그램 홍보를 할 때 여러 명이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티 나게 홍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한 <리얼연애 부러우면 지는거다>의 지숙·이두희 커플은 프로그램 MC인 장성규 씨가 진행하는 MBC FM4U <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에 출연했고, 배우 박해진 씨는 드라마 <꾼대인턴> 방송을 앞두고 <구해줘! 홈즈>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성현위원님(2019/2월)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MBC아나운서를 좀 더 많이 기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오 나의 파트, 너>에 10명의 MBC아나운서가 판정단으로 참여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 나의 파트, 너>는 무방청객으로 녹화가 진행되는데, 방청객 판정단 대신, MBC아나운서가 참여하게 된 겁니다.

<놀면 뭐하니?>의 경우 이번에는 라디오와 크로스 미디어 실험을 했습니다. <놀면 뭐하니?>는 라디오와 컬래버레이션으로 <두시 밤새>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FM4U <배철수의 음악캠프>가 30주년을 맞아 런던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런던공연 과정에서 <배철수의 음악캠프> 팀들은 30주년 단복을 맞추어 입었는데, 청취자들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이 장면을 보고 30주년 후드티 판매요청을 해왔습니다. 브랜드스토어에서 후드티를 제작하여,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판매를 하였고, 판매수익 중 <배철수의 음악캠프> 저작권료 400만원을 배철수 씨와 제작진 이름으로 사회공헌부를 통해 코로나19 성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지난번 유프래쉬 음원수익금 2억 원 기부에 이어, MBC는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4일에는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함께 이겨 냅시다> 특별생방송을 진행하여, 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와 함께 성금을 모금하였습니다. MBC도 1억 원의 성금을 희망브리지에 기탁하였으며, 이 성금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간호 인력들에 대한 긴급지원에 써달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MBC사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암광장에 야외 뉴스스튜디오를 마련하여 MBC 본사건물이 섰다운 되더라도 <뉴스데스크> 방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고, 라디오의 경우는 중계차 알라딘을 상암광장에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민원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난 2월에는 4건의 주요민원이 있었습니다. 3건은 민원인의 요청대로 수정완료 하였으며, 1건은 의견개진이라 관련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뉴스데스크>와 관련해 출연자의 직급이 잘못 표기되었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수정하였고, <생방송 오늘 아침>의 경우 당사자 사전허락 없이 인터뷰가 나갔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작진에게 전달하였으며, 제작진은 영상을 삭제 처리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 유튜브 영상을 사용하였는데, 출연자의 직업 표기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어, 민원인의 요청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월 시청자위원회 회의 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